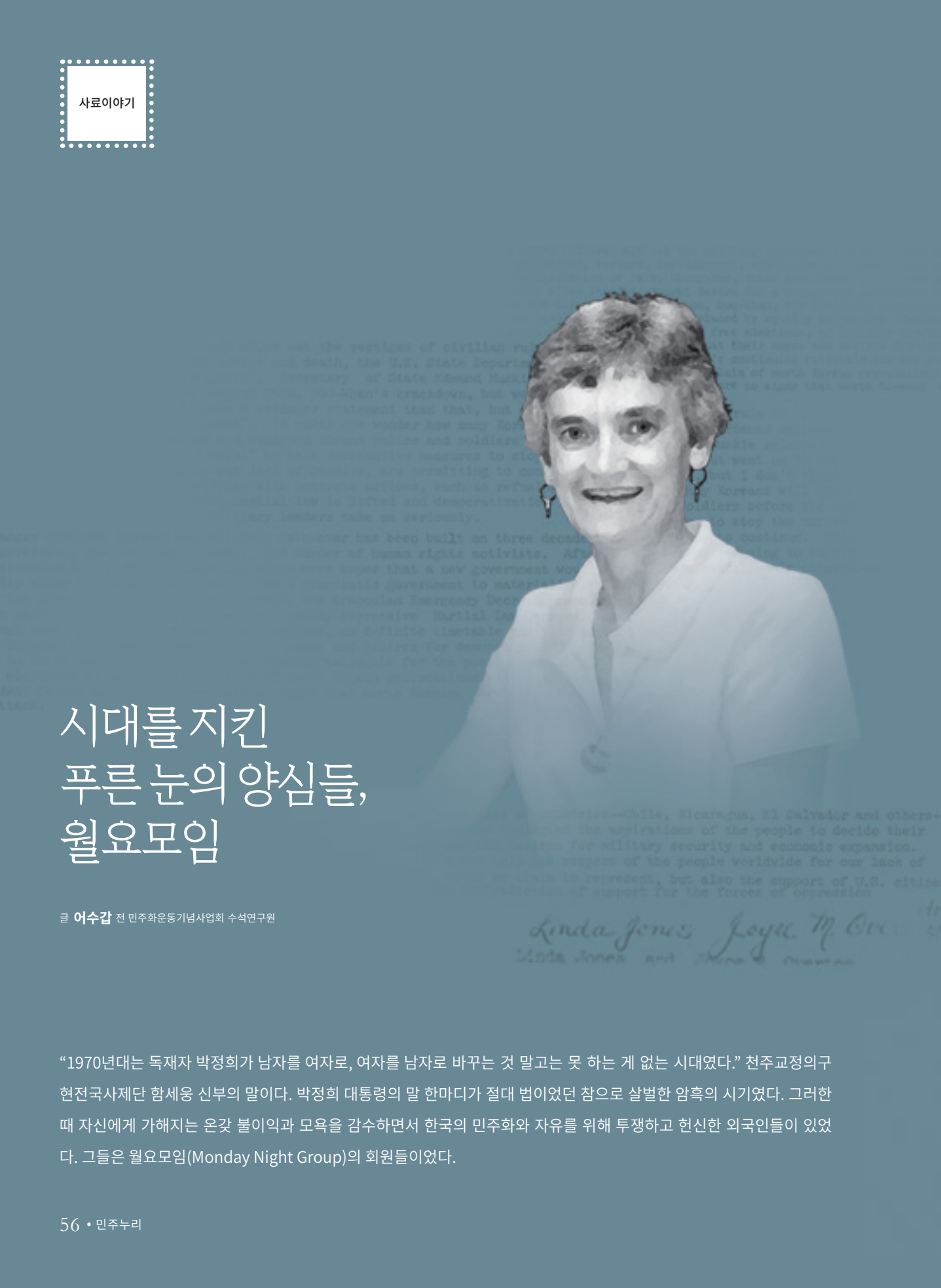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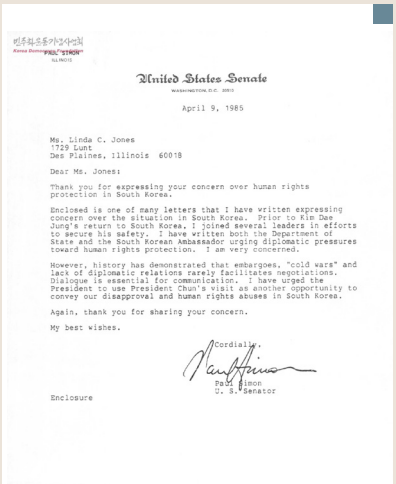


시대를 지킨 푸른 눈의 양심들, 월요모임

글 **어수갑**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수석연구원

"1970년대는 독재자 박정희가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것 말고는 못 하는 게 없는 시대였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함세웅 신부의 말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절대 법이었던 참으로 살벌한 암흑의 시기였다. 그러한 때 자신에게 가해지는 온갖 불이익과 모욕을 감수하면서 한국의 민주화와 자유를 위해 투쟁하고 헌신한 외국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월요모임(Monday Night Group)의 회원들이었다.

월요모임은 원래 1968년 2월 박정희 대통령 취임 축하차 방한한 험프리 미 부통령을 만나서 한국에서 벌어지는 인권탄압을 비롯한 저간의 사정을 설명하기 위해 장로교 선교사 허버트 화이트(Herbert White)가 주도해 만든 그룹인 50인위원회(또는 50인모임)로 시작되었다. 그런데 한국의 독재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면서 이들의 모임도 잦아지고 정례화되었다. 매주 월요일 밤마다 개신교와 가톨릭 선교사들의 집에서 번갈아 가며 모임을 가졌는데 보통 8명에서 10명 정도가, 어떨 땐 20명까지 모였다. 가톨릭 교도와 다양한 교파에 소속되어 있던 개신교인들인 그들은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출신이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FAX: 3100
ILLINOIS

United States Senate
WASHINGTON, D.C. 20510

April 9, 1985

Ms. Linda C. Jones
1729 Lunt
Des Plaines, Illinois 60018

Dear Ms. Jones:

Thank you for expressing your concern over human rights protection in South Korea.

Enclosed is one of many letters that I have written expressing concern over the situation in South Korea. Prior to Kim Dae Jung's return to South Korea, I joined several leaders in efforts to secure his safety. I have written both the Department of State and the South Korean Ambassador urging diplomatic pressures toward human rights protection. I am very concerned.

However, history has demonstrated that embargoes, "cold wars" and lack of diplomatic relations rarely facilitates negotiations. Dialogue is essential for communication. I have urged the President to use President Chun's visit as another opportunity to convey our disapproval and human rights abuses in South Korea.

Again, thank you for sharing your concern.

My best wishes.

Cordially,

Paul Simon
U. S. Sena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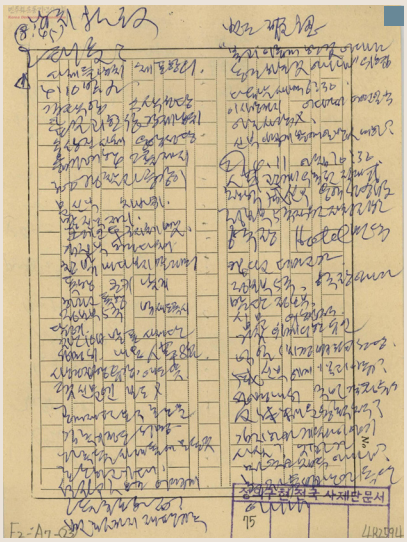
Enclos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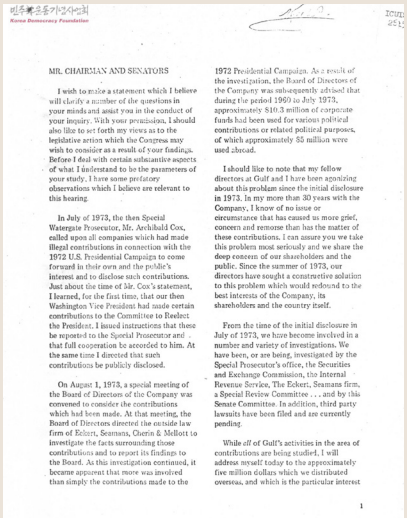
*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알리는 편지로 Paul Simon이 Linda Jones에게 김대중의 한국 귀환을 알리는 내용

한국의 극악한 인권상황을 앞에 두고 교파와 상관없이 모인 그들은 당시 국내언론에는 거의 나오지 않던 한국의 정치와 인권문제를 논의하고,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외국의 언론기사를 해외로부터 받아서 한국 내에 배포했다. 한편, 정치범과 고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각종 민주화 관련 선언문이나 편지 등의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비밀리에 한국 밖으로 내보냈다. 한국 정보 당국의 검열을 피해 위험을 무릅쓰고 일일이 자료를 몸소 들고 도쿄나 미국 등으로 운반하기도 했다. 이들의 활동을 통해 월요모임의 국제적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한국지원네트워크'와 '한국인권을 위한 북미연합'과 같은 일본과 미국 내의 연대조직이 만들어졌다.

외국의 언론은 이들로부터 취득한 한국의 인권 상황을 대서특필했고, 해외 여론을 가장 두려워하던 한국의 독재정권은 이를 두고 전전긍긍했다. 그들이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끼친 영향은 지대했다. 월요모임 회원 중 선교사이자 언론인이었던 짐 스탠츨(Jim Stentzel)은 박정희 정권은 오직 중앙정보부와 한 줌도 되지 않는 한국 관계자들만 알 것으로 여겨졌던 민주인사들의 체포와 고문 사실을 일본과 미국의 언론이 어떻게 그렇게 신속하게 보도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회고했다.

짐 스탠츨은 1973년 김대중 납치사건이 일어났을 때, 도쿄의 한 호텔에서 김대중과 인터뷰를 했다. 이를 계기로 한국의 인권 상황을 알게 된 이후 그의 삶은 전환점을 맞아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당시 민주화투쟁에 나섰던 기독교인들은 한국 기독교 내에서 소수파였으며, 종교로서의 기독교 역시 한국 사회에서는 소수에 속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큰 막대한 위험을 무릅쓴 일이었다. 미국인 선교사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대신 독재정권을 지지하고 있는 자신들의 모국인 미국에 대해서도 항의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MR. CHAIRMAN AND SENATORS

I wish to make a statement which I believe will clarify a number of the questions in your minds and assist you in the conduct of your inquiry. With your permission, I should also like to set forth my views as to the legislative action which the Congress may wish to consider as a result of your findings. Before I deal with certain substantive aspects of what I understand to be the parameters of your study, I have some prefatory observations which I believe are relevant to this hearing.

In July of 1973, the then Special Watergate Prosecutor, Mr. Archibald Cox, called upon all companies which had made illegal contributions in connection with the 1972 U.S. Presidential Campaign to come forward in their own and the public's interest and to disclose such contributions. Just about the time of Mr. Cox's statement, I learned, for the first time, that our then Washington Vice President had made certain contributions to the Committee to Reelect the President. I issued instructions that these be reported to the Special Prosecutor and that full cooperation be accorded to him. At the same time I directed that such contributions be publicly disclosed.

On August 1, 1973, a special meeting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Company was convened to consider the contributions which had been made. At that meeting, the Board of Directors directed the outside law firm of Eckert, Seamans, Cherin & Mellott to investigate the facts surrounding those contributions and to report its findings to the Board. As this investigation continued, it became apparent that more was involved than simply the contributions made to the 1972 Presidential Campaign. As a result of the investigation,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Company was subsequently advised that during the period 1960 to July 1973, approximately $10.3 million of corporate funds had been used for various political contributions or related political purposes, of which approximately $3 million were used abroad.

I should like to note that my fellow directors at Gulf and I have been agonizing about this problem since the initial disclosure in 1973. In my more than 30 years with the Company, I know of no issue or circumstance that has caused us more grief, concern and remorse than has the matter of these contributions. I can assure you we take this problem most seriously and we share the deep concern of our shareholders and the public. Since the summer of 1973, our directors have sought a constructive solution to this problem which would redound to the best interests of the Company, its shareholders and the country itself.

From the time of the initial disclosure in July of 1973, we have become involved in a number and variety of investigations. We have been, or are being, investigated by the Special Prosecutor's office,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The Eckert, Seamans firm, a Special Review Committee . . . and by this Senate Committee. In addition, third party lawsuits have been filed and are currently pending.

While all of Gulf's activities in the area of contributions are being studied, I will address myself today to the approximately five million dollars which we distributed overseas, and which is the particular interest

1

* **위** 인혁당 관련자 사형집행 후 사건의 진상을 알리고 사체를 수습하려던 천주교 사제들을 중앙정보부가 납치, 폭행, 압수수색을 하며 탄압한 사건에 대해 쓴 글
아래 미 의회에서 진행된 청문회 증언 기록으로 한국의 정치상황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루이즈 모리스(Louise Morris)를 비롯한 월요모임 회원들은 인혁당 관련자들의 죽음에 항의하기 위해 국제법상 미국 영역인 미대사관 앞에서 '조용한 외교'라는 이름으로 '배후에서 작용하고' 있는 미국에 항의하는 시위를 했다. "이것이 당신들의 조용한 외교인가?"라는 피켓을 들고서 인혁당 사건으로 전격 교수형을 당한 8인을 상징하는 검은 두건과 올가미를 목에 두른 채 침묵시위를 벌였다. 그날의 시위 사진은 타임지의 아시아판 표지에 실렸다. 이 충격적인 시위 사건은 그들 자신에게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장면으로 각인되어 오랫동안 뇌리에 남았다.

인혁당 사건이란 박정희 정권이 조작한 대표적인 국가폭력사건이었다. 유신정권은 "인혁당재건위가 공산주의 국가건설을 목적으로 학생들을 선동해 정부를 전복시키려 했다."고 발표하고 관련자 8명을 1975년 4월 9일 전격 처형했다.

문정현, 함세웅, 이해동 등 몇몇의 신부와 목사, 그리고 이소선 여사 등 극소수 한국인을 제외하면 아무도 그들의 신원(伸寃)을 감히 입에 담지도 못할 때, 월요모임은 용감하게도 그 유가족들과 함께 했다.

진 매튜스(Gene Matthews)를 비롯한 월요모임 회원들에게는 인혁당 사형선고 다음날 바로 집행을 하고 시신 5구를 강제로 탈취하여 화장한 일련의 사건이 발생했던 그 한 주가 생애에서 가장 끔찍한 날들이 되었다. 어느 누구도 정부가 그렇게 뻔뻔스러울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기 때문이다. 근엄한 판사들이 여덟 사람에게 사형선고를, 다른 6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데는 불과 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피고인들도 변호인들도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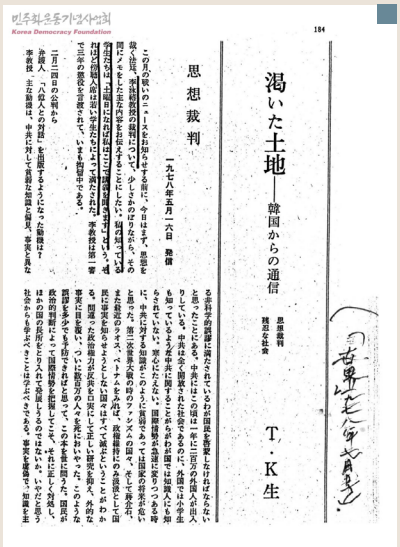
이런 기막힌 상황에서 월요모임 회원들은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오히려 더욱 열심히 활

동했다. 메리언 킴(Marion Kim)은 월요모임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는데, 그녀는 김관석 목사의 지시로 한국 인권상황에 관한 비밀보고서를 작성하여 필름에 담아 미국으로 몰래 유출했다. 그것은 후일 '한국인권에 대한 미 의회 청문회'의 공식보고서의 일부로 미 연방의회 의사록에 채택되었고, 1979년 6월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한국을 순방하는 동안 박정희 대통령에게 언급한 한국인권보고서의 토대가 되었다.

월요모임의 회장이자 여성 목회자인 린다 존스(Linda Jones)가 정리하여 극비리에 일본으로 보냈던 한국의 인권 자료들은 일본의 진보적 월간지 〈세카이〉(世界)에 '한국으로부터의 편지 – T.K생' 이란 제목으로 매달 연재되어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린다 존스는 미국으로 입양되어 가는 아기들의 기저귀를 기내에서 갈아주는 대가로 싼 값에 비행기를 탔는데, 마침 경유지 일본에 비행기가 잠시 머무는 틈을 타서 한국 기독교 인권 지도자들이 작성한 각종 문서와 성명서 편지들을 환승 라운지에서 공항 방문객으로 위장한 김용복 박사에게 전달했다. 촌각을 다투는 짧은 시간에 얼굴도 모르는 이를 '접선'하여 임무를 수행해야 했던 그녀에게 그 시간은 영원처럼 길었다. 하지만 그녀는 기적처럼 그 일을 해냈다.

그녀는 또 긴급조치 아래 쫓기고 있던 한국기독학생총연맹 소속 학생들이 숨어 지낼 수 있도록 기꺼이 자신의 방을 내주기도 했다. 린다 존스는 고국에 돌아간 이후에도 시카고에서 아시아교회인권위원회를 만들어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활동을 했다. 월요모임 회원들의 해외에서의 활동은 5·18광주항쟁 이후 숨죽이던 상황에서도 계속되었다.

린다 존스는 2003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개최한 '해외민주인사 초청사업'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였고, 이듬해 그녀가 수집하고 정리한 한국 활동 관련 자료를 사업회에 기증하였다.



＊ **위** 리영희의 반공법 위반사건 재판에 대한 내용으로 세카이에 실린 <한국으로부터의 편지 - T.K생>
아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기증할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린다 존스